

신약 성경 OUTLINE

- 로마서(32) -

184.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 롬 5:5-8

요절: 롬 5:5

사랑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지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때로 깊은 우정을 드러내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죽음보다 진해 보이는 연인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는 모든 소설과 노래와 연극과 영화의 주제입니다. 조국을 사랑함으로써 일생을 바친 순국열사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종교를 사랑해서 죽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꾸며낸 이야기나 전설이라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헐리웃 영화를 보면 ‘미녀와 야수’의 사랑 이야기조차 아름답게 꾸며냅니다. 인어 공주, 미녀와 야수, 애들이 좋아하는 ‘슈렉’ 등은 모두 이종(異種)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6:4). ‘**사람의 진정한 사랑이 짐승을 깨우고, 변화시킨다.**’는 내용에 세상은 즐거워하며 열광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소설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참된 사랑에 비하면 태양 앞에 반딧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 보다 현 세상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인간 존중, 인간 사랑을 진정한 Humanism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는 돈을 사랑합니다. 진리보다는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삶을 사랑합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기쁨보다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철학자들은 사랑의 정도를 나누고 종류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대상을 나눌 뿐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정도에 가치를 부여해서 죄와 불법도 기꺼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미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남자를 사랑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자기 남편이 아닌 남의 아내/남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정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사랑, 세기의 사랑, 잘못된 사랑 등등의 이름을 붙여 가며 ‘나는 사랑한 죄 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헐리웃이 추구하는 사랑은 대상 불문(不問)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의 대상을 밝혀 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

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생명,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5). 환난, 인내, 체험, 연단을 통해 생겨난 소망은 복된 소망, 참 소망, 영광스런 소망, 산 소망입니다. 소망의 실체는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골1:27).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주를 만나는 것, 우리 몸이 변화를 받는 것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고후4:18).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역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하늘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오?](롬8:24). 믿음이 소망의 실체입니다(히11:1). 우리가 만약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바란 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망상, 허상으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갖는 소망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을 누립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과 멸망과 수치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 성령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_____입니다. *보증
- ▶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_____입니다. *약속
- ▶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_____입니다. * 약속. 성령의 선물=성령이란 선물.
- ▶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_____입니다. *증인
- ▶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_____이십니다. *교사
- ▶ 성령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_____이십니다. '위로자'
- ▶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_____이십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잘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기 때문에(롬4:25) 그 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같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육체의 일,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지 ‘희망 사항’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소망은 산 소망, 영광스런 소망, 복된 소망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보증으로 인해 성도들은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의 출처와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수련을 통해서 내 속에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학문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 도달한 어떤 경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요일4:7). 이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명령을 수행할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 최대, 최선은 ‘자기 자신과 같이’입니다(마19:19, 22:39).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요13:34, 15:2)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적 기준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으로 사랑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성령을 통해 내 마음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본성과 종교적 훈련과 교리적 지식으로는 아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1.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금홍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엡2:4).

3.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롬8:39)

A. 사랑은 율법의 _____입니다(롬13:10). *완성.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10).

B. 사랑은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_____입니다(막12:30).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

C.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_____입니다(요13:34). *새 명령.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D.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_____입니다. *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니라.](골3:14). 사랑은 줄입니다. 사랑은 매는 줄이요(마 22:40),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E.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_____입니다. *표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나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F. 사랑은 목자의 _____입니다. *자격 요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 번 물어 보신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16,17). 목자는 신학교 졸업장이나 학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자격 요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G.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_____입니다. *덮개.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벧전4:8).

H. 사랑은 성령의 _____입니다(갈5:22). *열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와 저주가 되신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란 말은 ‘율법의 권능,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을 벗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힘센 용사요, 강한 권세자라도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제 아무리 고결한 인격을 갖춘 자란 평을 들어도 죄 앞에서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라 할지라도 마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앞에서는 그 누구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 살 힘도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마음에 기록된 법을 따라 살 힘도 없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정하신 때에(갈4:4, 벧전1:20)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a).

2.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에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계1:5). 우리

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며,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3.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 중의 우두머리입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사악한 죄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 2:20).

※ 모든 경우에 사랑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7).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남을 위해 죽으려 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 속에 갇힌 자녀나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가 죽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아이를 밀쳐 내고 대신 차에 치여 죽는 예도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죽으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a. 순국 선열 - 조국을 위해 죽으려는 이도 있습니다. Terrorists or Patriots?에 논쟁을 낳습니다.
- b. 순교자 - 종교를 위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 c. 자신의 신념이나 이상을 위해 죽는 이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분신(焚身) 자살하는 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 d.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서 한 장 남기고 죽어 버립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 e. 상사나 조직,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대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 f.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었다가 대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칭송합니다.
- g. 순애- 애인을 위해 죽다. 모든 소설과 영화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 h. 순직- 직장에서 일하다 죽다. 경찰, 소방 공무원 등등...

하지만 중을 위해 죽는 주인이 없고, 양을 위해 죽는 목자가 없습니다. 병자를 위해 죽는 의사가 없습니다. 신하를 위해 죽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는 누가 있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헛된 죽음을 죽었다는 아쉬움을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 불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신 이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8).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하나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_____이었을 때에. *죄인.
- ▶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_____를 위해. *우리.
- ▶ **하나님은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_____의 사랑 *자신.
- ▶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_____으로. *죽으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들이라면 사랑이란 말과 붙어 다니는 한 마디 말이 죽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인을 원합니다. 죄인을 오라고 초청하거나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요일3:16-17, 4:9,16참조. 사랑 vs 죽음.

성경은 하나님의 참 사랑,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 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느끼려 해도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 된 죄인들, 저주를 받은 죄인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는 그 범주를 달리하며, 차원이 다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 본 이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이들은 예외 없이 모두 삶이 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요일4:16)고 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